

학교 끝나면 뭐하니?

석교동을 중심으로
실제적 방과 후 실태조사

- 주관 :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

석교동을 중심으로 실제적 방과 후 실태조사

연구자 : 강영희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 주관 :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

■ 목 차

I.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5
II. 조사방법	7
III. 조사의 한계	8
IV. 방과 후 아동보호의 정책 및 현황	9
V. 석교동을 중심으로 실제적 방과후 실태조사	14
첨부 : 설문조사지	31

석교동을 중심으로 실제적 방과후 실태조사

I.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1. 실태조사의 필요성

“요즘 아이들은 참 바쁘다”라는 사실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엄마들의 입을 통해 피부로 느끼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자유롭게 갖는 자신의 여가시간은 극히 적고 학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교육에 참가하고 있거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기적성 교실인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부모님들은 “모두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내 아이만 놀게 할 수는 없다, 미래를 어쩔 수 없다, 주위에 친구가 없는데 혼자 놀게 할 수 없다.”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방과 후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직접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방과 후 일정으로 인해 오히려 아이들과 놀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가하면 생계형맞벌이를 하는 경우 방과 후 기관에 보내고 싶어도 경비부담으로 인해 방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부모들이 석교동지역과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것이 우리 방과 후 아동보호의 실태이다.

도서관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다보면 방과 후 활동에 관해 어른, 아이 모두 만족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엄격히 규제되는 한편, 방과 후 활동영역에서는 많은 부분 체벌이 허락되고 있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 체벌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알짹마을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가 대부분 초등학생이고, 방과 후 생활영역 속

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방과 후 생활 형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층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이들의 방과 후 실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많은 자료 중 아이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찾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들뿐이었다.

아이들의 방과 후 생활은 교육공간에서 벗어나 또래와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신을 위해 자신이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은 사교육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런 현실 속에 아이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방과 후 기관의 형태는 어떤지 조사하고 발표해서 방과 후 기관운영과 방과 후 정책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방과후기관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계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기관으로 모습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목적

이번 실태조사는 동부지역 중 석교동의 실태를 집중 조사하여 방과 후 아동보호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방과후 아동보호 정책과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동부지역의 방과 후 아동보호의 현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아동과 학부모의 방과 후 아동보호 방법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다. 셋째,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방과 후 아동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동부지역의 실제적 방과후 형태 실태조사 보고서는 방과후 아동보호가 대전지역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며 실무 주체였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알뜰마을어린이도서관은 향후 대전지역의 방과후 아동보호 정책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간의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II.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1) 본 자료는 석교동지역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형태와 바람에 대한 조사이다.
- 2) 본 자료의 조사대상자는 석교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7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3) 본 자료의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통하여 배포, 면담을 통해 조사되었다.
- 4) 본 자료의 조사기간은 2006년 7월 10일부터 14까지 5일 동안 5명의 조사원이 실시하였다.

2. 설문지의 조사내용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저소득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후 보육에 관한 연구」(2004년,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수정을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아이들의 기본 정보, 아이들의 생활현황, 방과 후 기관에 다니는 것에 대한 반응,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바람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설문지 구성 및 문항 수

조사항목	항목	문항번호	문항수
신상	학년	0	2
	성별	0	
아이들의 생활현황	아버지의 직장유무	1	9
	어머니의 직장유무	2	
	등교시간	3	
	점식식사 형태	4	

	저녁식사형태	5	
	등교시간의 보호자	6	
	하교시간의 보호자	7	
	숙제해결방법	8	
	걱정거리 의논대상	9	
방과 후 기관에 대한 호응도	현재 다니는 방과 후 기관	10	10
	방과 후 기관에 대한 반응	11	
	가고 싶은 이유	12	
	가기 싫은 이유	13	
	방과후 기관 이용 후 달라진 점	14	
	방과 후 기관 활동 종류	15	
	방과 후 기관 활동 중 싫은 것	16	
	방과후기관의 불편한 점	17	
	방과후기관의 편한 점	18	
	방과 후 기관 선생님의 반응	19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바람	방과 후 기관에 대한 바람	20	2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바람	21	

III.조사의 한계

첫째, 열쇠아동(방과 후 집에 보호자가 없어 본인이 직접 문을 열고 닫는 아이를 말함)중 방과 후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방과 후 생활 형태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했다.

둘째, 석교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셋째, 학원의 경우 선행학습위주의 보습학원과 단시간의 기능, 예술학원(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을 구분하지 않아서 선행학습위주의 강의식교육을 실시하는 방과 후 형태와 체험위주위 주도적 학습방법을 실시하는 방과 후에 대한 선호도분석에 혼란함이 있었다. (실제로 15번: 가고 싶다면, 왜 가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5) 새로운 활동들을 배울 수 있어서」 에 표시를 하고 옆에 피아노, 태권도, 컴퓨터 등을 기재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IV. 방과 후 아동보호의 정책 및 현황

1. 방과 후 아동보호의 정책

- 아동보호와 관련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출산율저하와 고령화 현상을 대비, 사교육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머무는 경향이 크다.
- 아동의 삶의 수준에 따라 방과 후 보호받는 공간의 영역이 분류된다.(학원비에 따른 사교육의 수준차이, 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 특별히 갈 곳 없는 아동은 학교 등)
- 건강한 공간에서 아동이 주체적이고 선택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 후 보호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 1> 방과후 활동 운영현황

구분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
대상아동	저소득 초·중·고생 (만6~17세)	초(4~6년), 중(1~2년)생 (만9~13세)	저소득 중·고생 (만12~17세)	초등학생 (1~3학년) (만6~8세)	초·중·고 생 (만6~17세)	초등학생 (1~6학년) (만6~12세)
수용규모	30명/개소	60명/개소	25~100석	18명/교실	30명/교실	15명/개소
수용현황	23,000명	2,350명	27,333명	15,538명	85,000명	20,159명
운영시간	8시간/일 (11~19시) (토요일 운영)	5시간/일 (15~22시) (토요일 운영)	15시간/일 (8~23시) (토요일 운영)	4시간/일 (13~17시) (토요일 운영 안함)	자율적으로 운영 (토요일 운영 안함)	4시간 이상/일 (토요일 운영)
주요기능	학습지도 및 보호, 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 제공	학습공간 제공 (독서실)	보육·교육 프로그램 제공	특기적성 교육·보충 학습, 방과 후교실 통합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현황	902개소	46개소	459개소	681개교 (875교실)	48개교	1,459개소

이용자 부담	무 료	월160~178천원 (저소득층은 무료)	월300~500 원	월 5~7만원 (저소득층은 무료)	파악 중	0~30만원 (저소득층 은 무료)
지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6억원 (일반회계) 월200만원(800개소) 서울 20, 지방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억원 (일반회계) 월560만원 (46개소) 전액 국고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억원 (균특) 월83만원 (323개소) 서울 0%, 지방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84억(지방 교육재정) * 지방비 일부포함 년1,200만원 (681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억(특별 교부금) 년2,000만원(48개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억원(일반회계) 교사인건비 지원 (100개소 지원)

· 출처 : '05. 10월 기획예산처 『아동·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용

1) 교육인적자원부

-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으로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운영
- 2004년 2월 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 2005년 3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초·중고 48개교에 방과후 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
- 2006년 자율성·다양성·개방성이 확대된 혁신적인 교육체제로서 방과후 학교 도입

(1) 방과 후 학교

- 기존에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실(초등), 수준별 보충 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06년부터 「방과 후 학교」 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
-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지정 교실(Home base) 설치, 지역사회의 대학생, 외부강사 등의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수익자 부담원칙

(2) 특기·적성 교육(1999년 운영계획 수립)

- 학생의 소질·적성개발, 사교육비 경감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운영, 재원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 강사·과건업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체결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교육·문화적 결손 치유·예방, 지역의 문화·복지 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 중심적 역할 수행
- 시범기간 2003~2004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운영협의회 구성

- 사업운영모델 : 학습능력증진, 정서발달 지원, 지역사회 연계 문화활동, 도서관 활성화, 방과 후 교실, 보건·의료지원

(4) 방과 후 교실

- 방과 후 가정의 기능을 보완과 학습내용 보충
- 학기 중 방과 후~18시까지 운영

2) 여성가족부 - 방과 후 아동보육

- 보육시설 내 방과 후 활동 활성화
- 보육시설 연장 근무 형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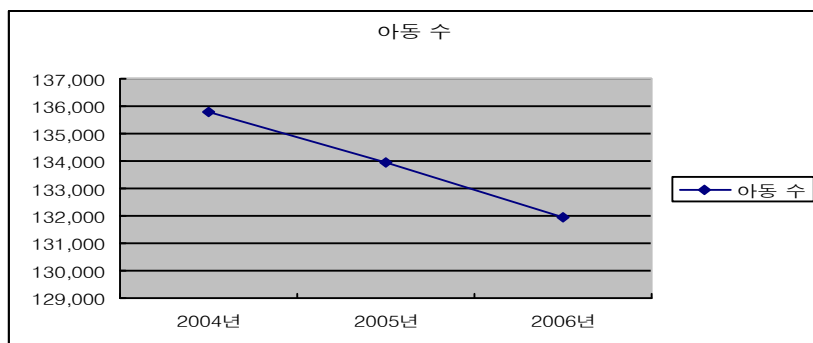
3)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 2003년 1월 UN 아동권리협약 이행관련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지적됨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로 규정, 2004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실시

2. 대전시 방과 후 아동보호 현황

- 대전시 초등학교 8세부터~13세 아동인구 수가 2004년 135,813명, 2005년 133,968명, 2006년 131,932명으로 매 년 약 2천여 명 정도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대전시 학령기 아동 수 연령별 현황



· 대전시 주민등록인구, 2004년~2006년 12월 말 기준

- 대전시 교육청의 2006년 학령별 학생 수를 살펴본 결과, 총 127,601명이며 서구의 학생 수가 가장 많고 동구의 학생 수가 가장 적었다.

<표 2> 학령별 학생 수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127,601	19,444	20,544	21,283	21,768	22,384	22,178
동구	15,934	2,412	2,513	2,619	2,732	2,887	2,771
중구	21,180	3,230	3,391	3,481	3,683	3,659	3,736
서구	45,593	6,744	7,054	7,596	7,622	8,284	8,293
유성구	23,848	3,850	4,159	4,092	4,026	3,912	3,809
대덕구	21,046	3,208	3,427	3,495	3,705	3,642	3,569

· 대전시 교육청, 2006년 통계

- 맞벌이의 증가와 가족해체로 인해 방과 후의 취학아동 보호는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취학아동의 경우 사설학원 외에는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자의든 타의에 의해서든 아동방임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방과 후 아동 보호는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되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빈부의 차이 없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 대전의 자녀양육실태를 보면, 양육방법이 자녀의 부모인 경우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학원이 39.1%를 차지하였음. 또한 10세 미만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동끼리 보낸다는 비율이 10.8%나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표 3> 취업부모의 만 10세 이하 자녀 양육실태(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자녀 부모	자녀 조부모	가족 친인척	탁아모, 가정부, 이웃사람	혼자, 아동끼리 보냄	유치원 종일제	유치원 반일제	보육 시설 종일제	보육 시설 반일제	학원	방과후 교실	기타
전국 평균	60.5	14.2	2.8	1.0	9.2	4.1	9.7	6.7	7.3	33.1	4.3	0.1
대전	58.2	10.3	2.3	1.3	10.8	2.3	11.1	7.4	6.9	39.1	5.4	0.0

· 주: 추산인구 수는 대전 만 10세 미만 자녀 총 수 대비 각 비율을 적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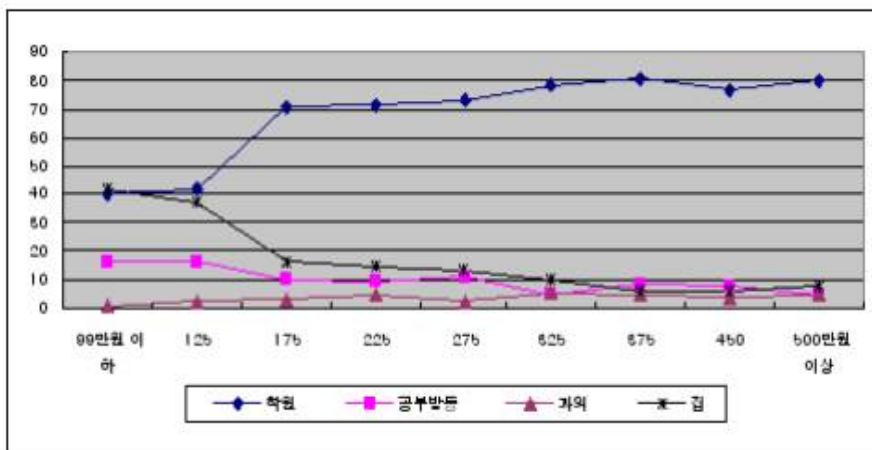
· 통계청, 2005년, 사회통계조사

- 특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으며 이는 방과 후 취학아동이 대부분 학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보호와 사교육비용이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 가구소득수준별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서 125만원 기준으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소득 175만 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학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125만원 이내의 가구에서는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가구소득수준별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



· 여성가족부, 2005년,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V. 석교동을 중심으로 실제적 방과 후 실태조사

1. 일반적 특성

석교초등학교 학급 수는 총 28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수는 총 885이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65명이 더 많다. 이 중 설문응답자는 총 738명(실제 응답자 786명, 결측 및 무응답 45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84%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특히 5학년의 경우 95%로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 수 대비 4학년과 5학년이 각 2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4학년과 5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석교초등학교 학급 및 학생 수

(단위 : 명)

학년	학급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합 계(B)	응답자 수(A)	(A/B)*100	(A/C)*100
2	5	80	70	150	130	87.0	17.0
3	5	77	80	157	107	69.0	15.0
4	6	106	93	199	178	90.0	25.0
5	6	108	86	194	183	95.0	25.0
6	6	104	81	185	140	76.0	19.0
합계	28	475	410	885	738(C)	84.0	100.0
응답자 성비	—	399	342	—	—	—	—

· 석교초등학교 홈페이지

· 응답자수(A), 학년별 합계(B), 총 합계(C)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8시~8시 30분이 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8시 30분 이후에 오는 학생이 19.5%였다. 석교초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시간은 9시부터 시작이나 8시 30분분부터 아침자율학습시간을 운영하고 8시30분까지 등교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에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8시30분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등교시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8시 이전	86	11.5
8시~8시30분	516	69.0
8시 30분 이후	146	19.5
합계	748	100.0
무응답 및 결측	38	—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장소를 묻는 질문에 학교로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 대비 91.6%로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급식비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급식이 가능하며 최근 맞벌이의 증가와 학교급식의 편리함으로 인해 이용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 점심시간 먹는 장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학교	707	91.6
집	59	7.6
안 먹음	2	0.3
방과후 기관	3	0.4
밖에서 사먹음	1	0.1
합계	772	100.0
무응답	14	—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학생은 672명으로 총 8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하는 경우가 8.9%로 나타났다.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13.7%의 아동은 대체적으로 열쇠아동(하교 시 학생이 직접 열쇠로 문을 여는 경우)으로 볼 수 있다. 열쇠아동은 가정형편을 떠나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하며 방학이나 휴일의 경우 잠재적으로 결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7>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가족	672	86.3
형제자매	60	8.9
다른 어른	9	1.2
방과후 기관의 선생님과 친구들	11	1.4
혼자	24	3.1
안 먹는다	3	0.4
합계	779	100.0
무응답	7	—

학교숙제의 도움을 받는 여부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경우가 444명인 5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23.8%를 차지하였다. 방과 후 기관과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2.5%로 나타났다.

<표 8> 학교 숙제 도움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혼자 한다	444	58.5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	181	23.8
방과후 선생님과 한다	6	0.8
학원 선생님과 한다	13	1.7
형제자매와 한다	76	10.0
친구와 한다	38	5.0
기타	1	0.1
합계	759	100.0
무응답	27	—

걱정거리를 누구와 의논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어머니와 의논하는 학생은 6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 친구 순서였다. 특히 선생님과 의논하는 경우가 5.2%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걱정거리 의논 여부

(단위 :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친구	형제자매	조부모	선생님	이모,고모	친척	없음
빈도	521	319	178	143	71	41	30	33	80
비율(%)	66.3	40.6	22.6	18.2	9.0	5.2	3.8	4.2	10.2

2. 방과 후 보호아동의 실태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는 여부를 파악한 결과 부모 모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394명으로 맞벌이 가정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9명이며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는 경우는 3명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모님의 직장여부

(단위 : 명, %)

구분		어머니			합계
		다닌다	안 다닌다	없다	
아버지	다닌다	394	283	16	693
	안 다닌다	17	9	1	27
	없다	12	5	3	20
합계		423	297	20	740

등교 시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경우가 666명으로 매우 높았으며 아버지의 경우도 41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가 문을 잠그고 등교하는 경우는 70명으로 전체 응답자(785명) 대비 8.9%를 차지하고 있다.

하교 시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경우는 458명이며 아버지의 경우 194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생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192명으로 전체 응답자(782명) 대비 24.6%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 후 보육에 관한 연구」(2004, 대전시)에서 조사된 6%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1> 등·하교 때 인사하는 가족

(단위 : 명)

구분	등교		하교	
	선택	미선택	선택	미선택
어머니	666	117	458	327
아버지	412	366	194	591
형제자매	166	619	133	651
다른 어른	96	685	93	690
내가 문을 잠금(아무도 없음)	70	715	192	590

3. 방과 후 기관 이용 실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과 후 기관으로 학원(434명) 학교(104명) 도서관(4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방과 후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많은 순서로 선택하게 하였기 때문에 다소 기관 간에 중복되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에 머물러 있다가 방과 후 기관으로 가는 아이나 방과 후 기관에서 돌아와 집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방과 후 기관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순위
학교	104	51	3
학원	434	113	1
지역아동센터(공부방)	18	10	6
도서관	45	17	5
사회복지관	0	0	8
어린이집	1	7	7
기타	41	36	4
집	138	244	2
합계	786	786	—
무응답 및 결측	5	308	—

· 순위 계산 : {(1순위)×2}+{(2순위)×1}

하교 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직접 문을 여는 학생과 방과 후 기관이용현황을 교차분석한 결과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5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21.9%로 가장 많은데 이 학생들은 방과 후 어떤 곳에서도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후 열쇠아동의 방과 후 생활 형태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 13> 하교 시 문을 직접 여는 학생 중 방과 후 기관 이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학교	25	13.0
학원	102	53.1
공부방	2	1.0
도서관	13	6.7
어린이집	0	0.0
기타	8	4.2
집	42	21.9
합계	192	100.0

4. 방과후 기관에 대한 생각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중 가고 싶다고 말한 경우는 59.7%, 가기 싫다고 말한 경우는 40.3%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의견수치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의 경우 이용 학생의 수가 학원과 학교에 비해 적은 수지만 전체 이용 학생 45명 모두가 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각 기관별 운영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고 싶은 방과 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내용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14> 방과 후 기관 별 해당 기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정말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합계
학교	8	20	47	21	96
학원	60	143	155	64	422
공부방	2	2	9	3	16
도서관	0	0	26	19	45
어린이집	0	1	0	0	1
기타	3	10	14	12	39
집	4	12	14	9	39
합계	77(11.7)	188(28.6)	265(40.3)	128(19.4)	658(100.0)

방과 후 기관에 가고 싶은 이유로 「새로운 활동들을 배울 수 있어서」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숙제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방과 후 기관은 주로 아동보호와 결식문제 해결이 주요 내용으로 운영방안이 모색되는데 반해 초등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인해 다양한 활동과 또래 친구를 만나고자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가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146
선생님이 좋아서	101
숙제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184
간식과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18
새로운 활동들을 배울 수 있어서	247
현장견학을 가볼 수 있어서	33
집과 가까워서	37
편히 있을 수 있어서	56
달리 갈 곳이 없어서	17
기타	40

· 3개 중복선택가능

방과 후 기관에 가기 싫은 이유로 「피곤해서」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재미없어서」, 「방과후 기관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로 나타났다. 방과 후 기관이 주로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학생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다거나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방과 후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활동영역과 이동영역의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16> 가기 싫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빈도
친구들이 싫어서	14
선생님이 싫어서	19
공부하기 싫어서	69
너무 멀어서	53
재미없어서	92
방과후 기관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74
다른 데서 놀고 싶어서	64
피곤해서	126
기타	42

· 3개 중복선택가능

방과 후 기관에 가고 나서 좋아진 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전에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그 다음으로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놀 수 있게 된 것」이다. <표 15>에서 방과 후 기관에 가고 싶은 이유로 「새로운 활동들을 배울 수 있어서」, 「숙제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의 순으로 나타난 것처럼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배우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17> 방과후 기관에 가고 나서 좋아진 점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놀 수 있게 되었어요	233	29.6
공부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208	26.5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155	19.7
착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35	4.5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85	23.5
더 튼튼해졌어요	79	10.1
인사를 잘 하게 되었어요	69	8.8
공중도덕을 잘 지키게 되었어요	32	4.1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55	7.0
나 스스로 생활할 줄 아는 힘이 생겼어요	142	18.1
전에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255	32.4
자신감이 생겼어요	175	22.3
없어요	95	12.1
기타	37	4.7

방과 후 기관에 가고 나서 좋아진 점으로 각 기관별로 확인한 결과, 학교와 학원은 「전에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공부방, 도서관, 어린이집, 기타의 경우는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놀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방과후 기관별 좋아진 점

(단위 : 명)

구분	학교	학원	공부방	도서관	어린이집	기타	집	합계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놀 수 있게 됨	39	138	9	27	1	13	6	233
공부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짐	34	122	8	22	0	10	12	208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어짐	36	86	4	16	0	8	5	155
착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됨	5	21	0	3	0	4	2	35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됨	31	111	6	23	0	6	8	185
더 튼튼해짐	16	52	2	2	0	7	0	79
인사를 잘 하게 됨	9	46	4	3	0	4	3	69
공중도덕을 잘 지키게 됨	4	21	2	2	0	2	1	32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됨	10	33	3	6	0	2	1	55

나 스스로 생활할 줄 아는 힘이 생김	22	86	5	14	0	8	7	142
전에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수 있게 됨	40	160	8	25	0	11	10	254
자신감이 생김	21	118	4	18	0	7	7	175
없음	11	71	2	0	0	5	6	95
기타	4	17	1	4	0	6	4	36
합계	282	1,082	58	165	1	93	72	1,753

방과 후 기관에서 하는 활동 중 가장 좋았던 것으로 컴퓨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체육, 영어, 수학·속셈으로 나타났다. 최근 컴퓨터와 영어가 모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어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등의 학습동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방과 후 기관에서 하는 활동 중 가장 좋았던 것 (단위 : 명)

구분	빈도
영어	126
과학활동	45
한자	37
컴퓨터	154
수학·속셈	102
신문·활용교육	1
붓글씨	5
글쓰기·독서	26
노래·율동	17
악기연주	49
미술	68
체육	129
만들기	43
종이접기	25
연극	13
견학	34
요리	61
모듬활동	7
기타	60
없다	74

· 3개 중복선택가능

방과 후 기관에서 하는 활동 중 가장 싫었던 것으로는 없다고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학·속셈, 영어, 한자로 나타났다.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3, 4위에 영어, 수학·속셈이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싫었던 활동으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습동기와 흥미에 있어서 선택의 강제성, 성적의 향상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위에 한자, 5위에 글쓰기·독서로 점점 학생들이 정적이고 사고가 필요가 필요한 학습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방과 후 기관에서 하는 활동 중 가장 싫었던 것 (단위 : 명)

구분	빈도
영어	95
과학활동	25
한자	79
컴퓨터	16
수학·속셈	121
신문·활용교육	39
붓글씨	51
글쓰기·독서	63
노래·윺동	56
악기연주	45
미술	21
체육	24
만들기	8
종이접기	13
연극	26
견학	16
요리	12
모듬활동	12
기타	24
없다	191

· 3개 중복선택가능

방과 후 기관별 이용 시 불편사항에 있어서 학교 「여름에 더움」, 학원 「쉬고 싶을 때 쉴 공간이 없음」, 공부방 「여름에 너무 더움」, 도서관 「기타」, 어린이집 「읽

을 책이 별로 없음」, 기타 「기타」, 집 「여름에 너무 더움」으로 나타났다. 불편사항에 너무 답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조사 시기가 7월 달이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방과 후 기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원의 경우 설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습위주의 교육환경이 가져오는 최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총 합계에서는 기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쉬고 싶을 때 설 공간이 없다는 나타났다. 기타가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선택항목 외에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향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쉬고 싶을 때 설 공간이 없다는 것, 더위, 그리고 화장실의 불편함이 나왔는데 방과 후 기관들은 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1> 방과 후 기관별 불편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교	학원	공부방	도서관	어린이집	기타	집	합계
방과후 기관이 너무 비좁음	1	31	0	0	0	0	1	33
책상, 걸상들이 불편함	5	39	1	3	0	1	1	50
화장실이 불편함	12	49	1	9	0	6	6	83
놀이감이 별로 없음	9	24	1	2	0	3	0	39
여름에 너무 더움	24	63	6	5	0	1	6	105
겨울에 너무 추움	7	23	1	1	0	2	2	36
TV, 비디오를 볼 수 없음	5	41	0	5	0	4	4	59
읽을 책이 별로 없음	8	46	2	3	1	3	1	64
쉬고 싶을 때 설 공간이 없음	15	79	2	3	0	2	5	106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음	11	57	1	1	0	3	3	76
선생님이나 일하는 어른들이 싫음	1	19	0	1	0	2	2	25
기타	21	67	1	6	0	12	5	112
합계	119	538	16	39	1	39	36	788

· <표 12> 1순위 방과 후 기관과 교차분석

방과 후 기관 이용 시 편안한 항목은 학교 「깨끗함, 여름에 시원」, 학원 「여름에 시원」, 공부방 「선생님이나 일하는 어른들이 좋음」, 도서관 「깨끗함」, 어린이집

「TV, 비디오 볼 수 있음」, 기타 「깨끗함」, 집 「깨끗함, 여름에 시원」으로 나타났다. 여름에 시원하다고 응답한 항목이 많은 이유는 불편선택사항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 합계에서는 여름에 시원, 기관이 깨끗함, 읽을 책이 많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불편한 항목에서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다는 점과 편안한 항목에서 깨끗하다는 선택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방과 후 쾌적한 공간에서의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미뤄볼 수 있다. 또한 불편과 편안한 항목 선택 모두 선생님이나 일하는 어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방과 후 기관별 편안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교	학원	공부방	도서관	어린이집	기타	집	합계
방과 후 기관이 깨끗함	26	89	5	25	0	10	7	162
책상, 걸상, 앉아있을 곳이 편함	25	61	2	9	0	4	5	106
놀이감이 많음	10	28	4	4	0	2	2	50
여름에 시원함	26	126	2	17	0	9	7	187
겨울에 따뜻함	11	44	2	11	0	5	3	76
TV, 비디오를 볼 수 있음	8	23	2	2	1	2	3	41
읽을 책이 많음	18	58	2	23	0	6	2	109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음	17	52	1	18	0	6	6	100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음	21	60	2	12	0	5	4	104
선생님이나 일하는 어른들이 좋음	22	53	6	17	0	4	2	104
기타	14	51	2	3	0	9	5	84
합계	198	645	30	141	1	62	46	

방과 후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공부를 잘 가르쳐준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해해준다, 도와준다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기관 활동내용이 주로 보습과 숙제지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부분은 높은데 반해 잘 놀아준다는 항목의 선택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 23> 방과 후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

(단위 : 명)

구분	빈도
나를 많이 이해해 주세요	162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42
나를 잘 도와주세요	157
나와 잘 놀아 주세요	21
나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 주세요	210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50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21
나를 귀찮아하세요	15
기타	61

· 2개 중복선택가능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기관은 「다양한 경험,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신나게 놀 수 있는 곳」, 「공부를 알려주는 곳」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기관 운영의 관점이 학습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기관은 활동적인 자유로운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원하는 방과 후 기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신나게 놀 수 있는 곳	165	21.0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114	14.5
공부를 알려주는 곳	131	16.7
맛있는 식사를 주는 곳	21	2.7
친구들이 많은 곳	34	4.3
다양한 경험, 놀이를 할 수 있는 곳	178	22.6
기타	32	4.1
무응답 및 결측	111	14.1
합계	786	100.0

방과 후 기관에서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편했으면 좋겠다, 쉬고 싶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응답으로 나왔다.

<표25> 방과 후 기관에서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생각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편히 쉬고 싶다	288	36.6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80	10.2
기행, 과학, 컴퓨터를 했으면 좋겠다	64	8.1
기타	133	16.9
무응답 및 결측	220	28.0
합계	786	100.0

VI. 결론 및 제언

동부지역의 실제적 방과 후 형태 실태조사는 석교초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대전지역의 평균적 실태와 연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나타난 형태는 그 동안 방과 후 아동보호의 문제와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석교동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향후 대전지역의 방과 후 아동보호의 논의를 확장시키기에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방과 후 아동보호 실태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열쇠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 모두가 직장을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53%(394명)에 이를 정도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으며 등교할 때 학생이 직접 문을 잠그는 경우가 8.9%(70명)이며 하교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24.6%(192명)에 이르렀다. 2004년에 대전시에서 조사한 6%보다(등교 시 직접 문을 잠그는 경우, 저소득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 후 보호에 관한 연구) 높게 나왔으며 하교 시 열쇠아동은 등교 때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과 후 아동보호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방과후 이용기관 1차 선택에 있어서 학원을 선택한 학생이 무려 55%(434명)에 이르렀으며 하교 시 열쇠아동이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53%(102명)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을 경우 그 다음으로 집을 선택하였으며 학교는 세 번째 순위였다.

셋째, 방과 후 기관이 학업의 연장선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기관이 사회적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게 된 것은 사교육의 열풍과는 다른 차원으로 아동보호의 욕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방과 후 기관에 가고 싶은 이유로 숙제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2위로 높았으며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영어와 수학·속셈이 3, 4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방과 후 기관에 가고 싶은 이유로 새로운 활동들을 배우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가 각 1위, 3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싫었던 활동으로 영어와 수학·속셈이 각 2, 3위를 차지하는 등의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친구들과 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학습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방과 후 기관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역할과 공간이 전무하다. 방과 후 기관에 가기 싫은 이유로 1순위가 피곤해서였으며 방과 후 기관이 불편한 이유로 기타항목 다음으로 쉬고 싶을 때 쉴 공간이 없다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방과 후 기관이 학습과 놀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이 학교교육 이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방과 후 아동보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별 방과 후 아동보호를 위한 실무기구 및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방과 후 아동보호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산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 기관마다 이용자의 특성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 근처에 거주한다고 그 학생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며(결식아동의 경우 근처에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큼)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이동거리가 이용에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연계망을 구축하여 실무기구단이 정기적 회의를 통해 운영사례 및 이용자에 대해 통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 후 운영을 학습중심의 교실형태에서 휴식과 활동의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방과 후 학생들은 자유로운 활동과 휴식의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방식은 빈 교실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학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학원을 하나 더 보내는 이유로 학생을 보호할 곳이 없다는 것이 사교육열풍을 제외하고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정적인 보호와 휴식의 공간으로 방과 후 기관을 원하고 있으나 현

재의 운영시스템이 그 욕구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비롯한 기관에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간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방과 후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문화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석교동의 경우 지역사회복지관이 없을뿐더러 각종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이 결국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석교동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주민공동체형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규모 시설보다 마을 단위의 소규모이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방과 후 아동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보육 및 방과 후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05년도부터 급격히 높아져갔으며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도 5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공포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내용이 출산율 증가와 고령세대의 일자리 창출 등의 생산성을 강조할 뿐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책임은 부재한 상태다.

특히 현 정책은 출생시기에만 초점을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크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과 더불어 출산율 증가정책의 대상범위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끝나고 무엇을 하나요?

- 동부지역의 실제적 방과후 형태 실태조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신나고 즐거운 방과후 활동의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를 위한 자료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것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V표** 하거나 직접 써 주면됩니다.

2006년 07월

연구자 : 강영희 (알짬마을어린이도서관장)

전 화 : 042-283-7778

※ 질문에서 말하는 방과후 기관은?

여러분이 학교가 끝난 후 집을 제외하고 공부하거나 놀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학교, 학원,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입니다.

학 년	학년	
성 별	____남	____여

‘나’ 의 생활에 대한 물음입니다.

1. 아버지는 돈벌러 다니시나요?
 ____1) 다니셔요 ____2) 안 다니셔요 ____3) 아버지가 안계셔요

2. 어머니는 돈벌러 다니시나요?
 ____1) 다니셔요 ____2) 안 다니셔요 ____3) 어머니가 안계셔요

3. ‘나’는 몇 시쯤 학교에 가나요?
 집을 출발하는 시간 : 오전_____시

4. ‘나’는 몇 시쯤 방과후 기관(방과후 학교, 학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오나요?
 방과후 기관에 오는 시간 : 오후_____시

5. 점심식사는 주로 어디에서 먹나요?
 ____1) 학교에서 먹는다 ____2) 집에서 먹는다
 ____3) 안 먹는다 ____4) 방과후 기관에서 먹는다
 ____5) 밖에서 사먹는다

6. 저녁식사는 누구와 먹나요? 모두 표시해주세요
 ____1) 어머니 ____2) 아버지 ____3) 언니(누나), 오빠(형), 동생
 ____4) 다른 어른 ____5) 혼자 ____6) 안 먹는다

7. '내'가 학교에 갈 때 누구에게 인사하고 나오나요? 모두 표시해주세요.

- ___1) 어머니 ___2) 아버지 ___3) 언니(누나), 오빠(형), 동생
___4) 다른 어른 ___5) 내가 문을 잠그고 나와요

8. '내'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누구에게 인사하나요? 모두 표시해주세요.

- ___1) 어머니 ___2) 아버지 ___3) 언니(누나), 오빠(형), 동생
___4) 다른 어른 ___5) 아무도 없어요

9. 학교 숙제는 누가 도와주나요?

- ___1) 혼자 한다 ___2) 엄마, 아빠가 도와준다
___3) 방과후 선생님과 한다 ___4) 학원 선생님과 한다
___5) 언니(누나)나 오빠(형)과 한다 ___6) 친구와 한다
___6) 기타 _____

10. 걱정거리가 있을 때 누구와 의논하나요? 모두 표시해 주세요.

- ___1) 어머니 ___2) 아버지 ___3) 친구 ___4) 언니(누나), 오빠(형)
___5) 할머니, 할아버지 ___6) 선생님 ___7) 이모, 고모 ___8) 친척
___9) 의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방과후 기관에 다니는 것에 대한 좋아하는 정도에 대한 물음입니다.

11. 현재 학교가 끝난 후 다니고 있는 방과후 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순대로 선택해 주세요. ①_____ ②_____

- ___1) 학교 ___2) 사회복지관 ___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___4) 도서관 ___5) 어린이집 ___6) 기타

※ 다음부터는 <11번>에서 ①번으로 선택한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방과후 기관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___1) 정말 오기 싫어요(14번으로 이동) ___2) 오기 싫어요(14번으로 이동)
___3) 오고 싶어요 (13번으로 이동) ___4) 꼭 오고 싶어요(13번으로 이동)

13. 오고 싶다면, 왜 오고 싶은가요?('나'의 생각과 같은 곳에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___1)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___2) 선생님이 좋아서
___3) 숙제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___4) 간식과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___5) 새로운 활동들을 배울 수 있어서 ___6) 현장견학을 가 볼 수 있어서
___7) 집과 가까워서 ___8) 편히 있을 수 있어서
___9) 기타 _____

14. 오기 싫다면, 왜 그런가요?('나'의 생각과 같은 곳에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___1) 친구들이 싫어서 ___2) 선생님이 싫어서
___3) 공부하기 싫어서 ___4) 너무 멀어서
___5) 재미없어서 ___6) 방과후 교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___7) 다른 데서 놀고 싶어서 ___8) 피곤해서
___9) 기타 _____

15. 방과 후 기관에 오고 나서 좋아진 점은 무엇일까요?('나'의 생각과 같은 곳에 모두 V를 하세요.)

- ___1)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놀 수 있게 되었어요
___2) 공부하는 것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___3)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___4) 착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___5) 신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___6) 더 튼튼해졌어요
- ___7) 인사를 잘 하게 되었어요
- ___8) 공중도덕을 잘 지키게 되었어요
- ___9)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___10) 나 스스로 생활할 줄 아는 힘이 생겼어요
- ___11) 전에 할 줄 모르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___12) 자신감이 생겼어요
- ___13) 기타 _____

16. 방과후 기관에 계속 다니고 싶은가요?

- ___1) 예 ___2) 아니오 ___3) 모르겠다

17. 방과후 기관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좋았던 활동은 무엇인가요?('나'의 생각과 같은 곳에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___1) 영어 ___2) 과학활동 ___3) 한자 ___4) 컴퓨터
- ___5) 수학·속셈 ___6) 신문·활용교육 ___7) 붓글씨 ___8) 글쓰기·독서
- ___9) 노래와 율동 ___10) 악기연주 ___11) 미술 ___12) 체육
- ___13) 만들기 ___14) 종이접기 ___15) 연극 ___16) 견학
- ___17) 요리 ___18) 기타 _____
- ___19) 없다

18. 방과후 기관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싫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나'의 생각과 같은 곳에 3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___1) 영어 ___2) 과학활동 ___3) 한자 ___4) 컴퓨터
- ___5) 수학·속셈 ___6) 신문·활용교육 ___7) 붓글씨 ___8) 글쓰기·독서
- ___9) 노래와 율동 ___10) 악기연주 ___11) 미술 ___12) 체육
- ___13) 만들기 ___14) 종이접기 ___15) 연극 ___16) 견학
- ___17) 요리 ___18) 기타 _____
- ___19) 없다

19. 방과후 기관은 편안한가요?

- ___1) 아주 편해요(21번으로 이동) ___2) 조금 편안해요(21번으로 이동)
___3) 불편해요(20번으로 이동) ___4) 매우 불편해요(20번으로 이동)

20. 불편하다면 왜 그런가요?('나'의 생각과 같은 곳에 모두 V를 하세요.)

- ___1) 방과후 기관이 너무 좁아요 ___2) 책상, 걸상들이 불편해요
___3) 화장실이 불편해요 ___4) 놀이감이 별로 없어요
___5) 여름에 너무 더워요 ___6)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___7) TV, 비디오를 볼 수 없어요 ___8) 읽을 책이 별로 없어요
___9) 그냥 쉬고 싶을 때 쉴 곳이 별로 없어요
___10)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___11) 기타 _____

21. 편하다면 왜 그런가요?('나'의 생각과 같은 곳에 모두 V를 하세요.)

- ___1) 방과후 기관이 깨끗해요 ___2) 책상, 걸상, 앉았을 곳이 편해요
___3) 놀이감이 많아요 ___4) 여름에 시원해요
___5) 겨울에 따뜻해요 ___6) TV나 비디오를 볼 수 있어요
___9) 읽을 책이 많아요 ___10) 그냥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___11)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___12) 기타 _____

22. 방과후 기관의 선생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나'의 생각과 같은 곳에 2개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 ___1) 나를 많이 이해해 주셔요 ___2)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___3) 나를 잘 도와주셔요 ___4) 나와 잘 놀아 주셔요
___5) 나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 주셔요 ___6)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___7)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___8) '나'를 귀찮아 하셔요
___9) 기타 _____

23. 방과후 기관이 어떤 곳이면 좋을까요?

- ___1) 신나게 놀 수 있는 곳 ___2)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 ___3) 공부를 알려주는 곳 ___4) 맛있는 식사를 주는 곳
___5) 기타 _____

24. 방과후 기관에 대해, 방과후에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써주세요.

■ 주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알짹마을어린이도서관

■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